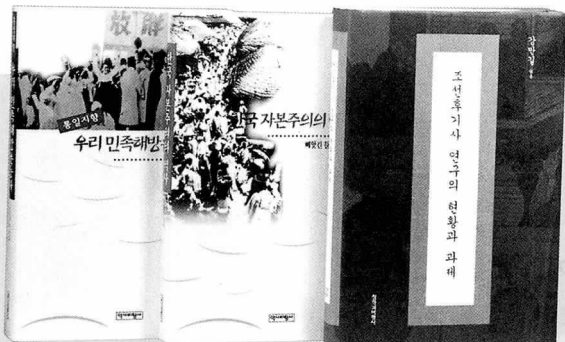


40여년의 학문적 열정에 바친 후학들의 애정

강만길 명예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세권 펴내



강만길 명예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후학과 제자들이 스승에게 뜻깊은 책 세권을 헌정했다. 이 책들은 40여년에 걸친 강교수의 학문적 편력을 정리하고 후학들에 의해 심화·확대된 역사연구의 현단계를 보여준다. 이 책들 속엔 역사학의 현재성과 대중성을 강조하면서 21세기 통일 역사학을 준비하는 원로사학자의 열정이 이어지고 있다.

강만길 명예교수(67, 고려대 한국사학과)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후학과 제자들이 공동 집필한 《통일 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이상 역사비평사)와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창작과 비평사)가 나란히 출간됐다.

통일시대의 역사인식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 정리해

이 책들은 '일회성 노력동원'의 성격이 짙은 기존의 정년기념논문총과는 달리, 후학과 제자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집필에 대해 강교수가 고사 끝에 공동작업에 참가한 논문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노학자의 겸손 및 배려와 스승의 학문적 열정을 이어받겠다는 제자들의 애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과물이다.

세권의 책에는 40여년 동안 한국사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강교수의 역사인식이 후학들에 의해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조선후기 자본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을 수립해 식민사학의 극복을 제창해온 강교수는 1970년대 이후 '분단극복사론'과 최근의 '대동통일론'을 아우르며 역사학의 현재성과 대중성을 강조해왔다.

《통일 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는 '통일시대의 역사인식'이라는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논문집이다. 지수걸 공주대 교수, 고정휴 포항공대 교수, 노경채 수원대 교수 등 민족해방운동사 전공자 14명이 집필한 이 책은 우리 근현대사가 식민지와 분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식민지 시기를 전후한 민족해방운동사의 노선과 그 발전경로를 체계적으로 실증했다.

특히 좌우익을 아우르는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해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그 발전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이런 흐름이 오늘날 평화통일·대동통일의 역사적 원류로 이어지고 있음을 해명했다. 1876년부터 1948년까지 민족해방운동 과정의 정세변화나 운동의 성격에 따른 연관성에 기초해 시기별로 한데 묶었고 각 글은 주로 지역별로 서술했다.

정태헌 고려대 교수, 정병욱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하원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1명이 참가한 《한국 자본주의의 역

사》는 문호개방 이후부터 박정희 정권 시대까지 100여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전문 역사학자들이 최초로 정리한 개설서라는 점에서 뜻깊다.

이 책은 조선후기 이래 맹아적 형태로 발전해온 자본주의적 발전이 개방 이후 일제의 침략으로 왜곡·굴절된 역사와 해방 후 봉건적 식민주제를 청산하지 않은 채 전개돼온 자본주의 발전이 IMF사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밝혔다.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기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민중의 험난한 삶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론과 실증의 변증법적 긴장 강조해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는 조선후기사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했다. 이 책은 조 광 고려대 교수, 김성우 경산대 교수, 이철성 건양대 교수 등 17명의 조선후기 전공자들이 참여해 '법과 제도' '전쟁과 대외관계' '경제변동' '향촌사회의 구조' '사회의 동요' '사상과 문화' 등 6개의 장으로 나눠 서술했다.

강교수는 총설에서 1960, 70년대의 조선후기사 연구는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당위적 과제 아래 내재적 발전론에 집중됐지만 이론과 실증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하고, 1980, 90년대 사회과학 이론으로 무장한 실천적 소장학자들이 등장해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사관이 대두하고 민중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정리한다.

강교수는 후학들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최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사학이 이론적 근거 없이 사료를 취합하는 사료편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역사연구가 '소재주의'로 흐름을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론과 실증의 변증법적 긴장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한다. "역사의 이론은 실증에 기초를 뒤야 하고, 다시 실증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 박천홍 기자